News p/3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제3234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8



메르스, 금리마저 내릴까

'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사건' 정의선 법원에선 최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하는 판결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재판에 넘겨지면 엄청난 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인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기소편의주의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기소편의주의를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기소유예가 이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다.

생계를 위해 빵 몇조각을 훔친 '장발장'같은 사람마저 예외없이 절도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면 되레 사회계약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입법자가 검사에게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이 권한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결과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 검찰은 이 점에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벌 관련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인 만큼 사회적 의무감도 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감의 상당부분은 재벌 관련 사건에서 빚어졌다. 재벌도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말 강자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상대적 약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대로 했다는 비판도 많다.

이건희 회장이 연루된 '삼성X파일사건'과 정몽구 회장이 주범이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진정한 '강자' 앞에서 검찰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반면 태광그룹 '이선애-이호진 모자 사건'과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사건' 은 재벌이라도 최강자가 아니면 검찰에 어떤 취급을 받는 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다.

태광그룹 이 회장 모자와 SK그룹 최 회장 형제는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태광 이선애 전 상무는 수감생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달 사망했고, 최태원 회장 형제는 아직도 둘 다 감옥에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처벌 법규는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배임이다. 횡령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이 법이 정한 최대 형은 무기징역이다.

삼성X파일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 등은 아예 검찰이 밝혀낸 게 없으니 뭐라 비판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서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은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더 논란거리가 됐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우여곡절을 거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형'을 받았다. 문제는 정 회장의 아들이자 현대차 그룹의 후계자로 확실시 된 정의선 부회장(당시 기아차 사장)이었다.

검찰은 2006년 6월 정몽구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기소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정의선 부회장마저 재판에 넘겨지면 기아차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였다.

2007년 6월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된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정몽구 회장에 뒤지지 않았다. 본택 등 기아차 계열사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을 이용해 후계구도를 짜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 최소한 500억원대의 횡령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판결문 요지다.

결국 정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지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된 것이다.

판사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11일 "법이 검사에게 기소유예 권한을 준 것은 공동체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좀 더 큰 목적을 위해 기소권 행사에서 좀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정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 동안 검찰은 스스로 이를 일종의 특혜 부여라고 여긴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곧 사법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풍토 조장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어 검찰은 사실상 상명하복 지휘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지휘부의 오판이나 불성실이 곧 검찰 전체의 부담으로 떠넘겨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도 이제는 미국식 대배심 등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영국도 '미군 탄저균 실험' 의혹 증폭

2012년 목성프로젝트 수립전 2007년 배송사고
이전부터 실험 가능성·관련국에 영국도 적시돼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미국 유타주의 더그웨이 연구소의 실험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미군의 탄저균 배송사고는 영국에서 2007년에, 호주에서 2008년에 발생했다. 미군은 한국 오산기지에서의 배송사고는 올해 처음이라고 했다. 미군은 배송된 탄저균으로 생물무기 실험을 했다. 지난 2012년 11월 미 국방부가 수립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공교롭게도 목성 프로젝트 책임자는 한국, 호주, 영국을 프로젝트 관련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2012년 목성 프로젝트 이전부터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실험"이라며 "생물무기감시포털(BSP)은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프로젝트에 적시된 대로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의 BSP 구축에 나섰다는 방증이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탄저균은 대표적인 경보체제 적용 대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탄저균 실험이 한국 외에도 호주와 영국에서도 실시됐을 공산이 크다. 2007년 영국에서의 탄저균 오배송과 2008년 호주에서의 오배송이 목성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더 나아가 목성 프로젝트의 전 단계로 영국과 호주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고, 목성 프로젝트 이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실험장소로 한국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주한미군은 오배송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자는 없다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탄저균 문제에 대해 종결선언을 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주한미군이나 우리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해명은 탄저균 오배송에 따른 감염 여부에만 국한돼 있다. 오배송 문제가 애초 보고보다 심각하지만 낮은 농도와 밀폐포장으로 위협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미군의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은 미국 본토, 한국, 호주, 영국 등 모두 68곳으로 늘어났다. 최초 미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오산기지를 포함해 10곳에 불과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英 '브렉시트 국민투표 법안' 통과

EU와 협약개정 협상 진행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2017년 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해야 최종 승인된다.

이날 국민투표 시행 법안은 찬성 544표, 반대 5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해 온 노동당마저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자유민주당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에서 약진해 보수당, 노동당에 이어 제3당이 된 스코틀랜드독립당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당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투표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이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법안을 설명하면서 "한 세대는 유럽에서 영국의 입지에 대해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유럽연합 탈퇴 여론의 발단이 됐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민들에게 유럽연합 잔류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천안함 선체 둘러보는 해리스 사령관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최윤희 합참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서 희생 장병을 추모한 뒤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황교안에 사면 자문 의뢰했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을 두고 해당 사건 의뢰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자문 사면 의뢰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천신일 세중 회장이 의뢰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세중나모여행 회장이었던 그는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성X파일 공개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수사를 받았던 노회찬 전 의원(오른쪽)이 10일 황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황 부보자를 평가했다. 두 사람은 경기고 동창이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알선수뢰 천신일이냐' 질문 쇄도
황교안 "작은 기업"… 증인들 "모른다" 함구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1월 4일 사건명이 '사면'인 신고서가 있다"며 "1월 5일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천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기사를 보면 검찰 관계자가 1·2심이 같으니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론이 같을 예정이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누가 상고를 포기하라는 디자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총리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황 후보자가 소속했던 태평양에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의뢰인들의 신상 등은 개인정보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한다"며 "사면 대상자가 천 회장 아니냐"고 강 변호사에게 재차 물었다. 강 변호사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천 회장이 태평양에 의뢰한 민사사건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도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강 변호사는 "대표가 변호사 수임 사건을 다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에게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박 대통령 방미 전격 연기… 여당 왕따 '뒤끝'

靑 "이번주 메르스 확산 분수령… 국민안전이 최우선"
여당 지도부는 발표 직전까지 "예정대로 진행 건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부가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국내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론적으로 야당을 비롯한 출국 비판 여론을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여당에게는 '유감스런' 일이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기 발표 직전 순방 강행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따돌린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간 앙금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가 3차감염·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과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며 순방외교를 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한·미 간에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로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미·일 신밀월에 대한 대응이 핵심 관심사였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방미가 연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협력과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기 결정은 지난 해 5월 세월호 참사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비판여론이 거셌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이 굳이 세일즈 순방외교를 언급한 배경이다.

이날 청와대의 결정은 '전격' 자체였다. 여당 지도부에게조차 귀띔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그건(방미 연기 여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지만 당에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 직전에 나온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순방 연기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협의한 결과로 협의 시점은 이날 아침이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모습. 오른쪽부터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 이날 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문제와 관련해 "계획대로 방미하시는 게 옳다"며 "취소하는 경우 과잉대응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메르스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 비우는 게 곤란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미 외교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연기 발표 직전 이 같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메르스 전선사령관, 차라리 한민구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군, 환자 단 1명
확진자 108명과 대비… 신속대응 성과

1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는 13명이 늘어나 108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 9명이다. 반면 메르스 환자 속출 사태가 우려됐던 군에서는 지난 3일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을 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군은 24시간 집단생활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성과는 신속하고 빈틈 없는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정점으로 한 군의 비상대응 리더십이 보건당국의 리더십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된다.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전후방 지역에 모두 4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메르스 병원 이름이 공개되기 전 일괄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셈이다. 현재도 전면통제아래 의심환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메르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군에 예방수칙을 시달했고, 군내 메르스 환자 접촉자와 감염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확진환자에 대해 4차 검사를 실시했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격리조치를 취했다. 지난 4일 오산기지에서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 오산기지 내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메르스 확산이 멈추지 않자 훈련병을 비롯한 현역군인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주의단계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정부와 대비된다.

전방부대는 군의 아킬레스건이다. 메르스에 뚫릴 경우 학교처럼 휴전선을 비운 채 잠시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안보관광지 통제를 위해 군부대는 인근 지방 군청에 출입통제를 요청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등 서북부전선과 강원 양구군 중동부전선 최전방 안보관광지 운영이 중단됐다.

보건당국은 초기 격리대상자 관리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초래했다. 밀접 접촉자 파악에도 느슨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병원 등 관련 정보를 늑장공개해 사태 확산을 자초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문형표(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경환(오른쪽) 총리대행 옆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틈타 성완종 덮으면 특검"

野 '면죄부 수사' 성토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봉합 국면으로 흘러가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정권 실세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끝내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을 틈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는 공개 소환했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비공개 소환했다"며 "홍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라고 해서 검찰이 배려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이나 여권 비주류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하고 친박 실세 앞에서는 꼬리 내린 고양이가 된다"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비주류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 관련한 특검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다"며 "다만 국회법 안에 있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가뭄과의 전쟁 육군 36사단 장병이 10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강원 강릉시 왕산면 고랭지를 찾아 배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재무담당’ 법정 선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증인 채택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재무담당 책임자였던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의 증거 은닉 등 혐의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 측이 한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난 8일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경남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였던 한 전 부사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본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준호(왼쪽)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오른쪽) 전 비서실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차후 기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에 앞서 회장실 여비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hong@

유정복·서병수 추가 서면조사

특수팀, 2차 질의서 발송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유정복(58) 인천시장과 서병수(63)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10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9일 오후 유 시장과 서 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親朴) 인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특정된 것과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범행시간만 달라졌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대법 “공조장변경 불허하고 무죄 선고 부당”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시간만 30분 후로 바뀌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간을 바꾸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다툰 시각은 오후 5시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4시30분에는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이지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세게 휘둘렀고, 그 탓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기소유예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을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 존스쿨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 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연미란기자

4~5세기 삼국시대 유물 와르르

삼국시대 유물이 한꺼번에 발굴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4~5세기 삼국시대 무렵의 마을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문화재청 주재로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학술적 연구 공유를 위해 이날 지역 문화재 발굴기관과 전문가·일반인에게 문화재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이번 삼국시대 유물 발굴 결과는 기존 조사된 주변 산정동 유적, 하남동 유적 등과 상호 연계해 삼국시대의 광주지역 고대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국시대 유물 발굴 장소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181기, 고상식 건물지 165기, 가마 4기, 고분 4기, 구(배수용도 등의 구덩이) 42기, 저수유구(소규모 저수시설) 2기, 조선 후기 토광묘 27기’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일광공영 납품비리’ SK C&C 전 전무 구속기소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린 전직 대기업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ESTW를 납품대금을 허위 계상해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 담당 전무를 10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사산 EWTS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EWT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EWTS의 핵심 기술인 주전산장비(C2)와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하청과 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하벨산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소프트웨어 부문 국산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윤 전 전무 외에 다른 SK C&C EWTS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추가 조사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입건할 만큼 뚜렷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와 지모 전 부장,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홍원기자

"선종구 前 회장, 그림 매매과정 비상식적"

재판부, 항소심서 의문 제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술품 매수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선 전 회장은 1심에서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판매됐다고 말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다. 본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매매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매한 임원들이 무상으로 우겼는데 끝까지 유상으로 사겠다고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 사정을 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손해는 감정과 별개"라면서도 "(그림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 중 하나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 전 회장 측에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다른 의견은 없다. (별도의) 세금 관련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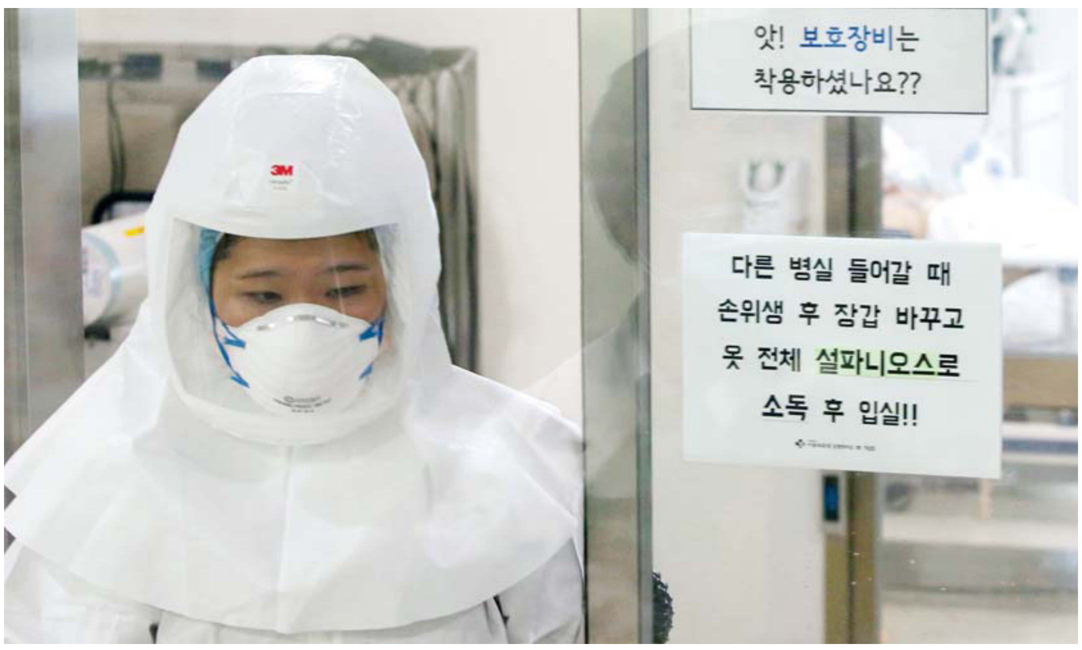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무리한 수사로)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이 전부 나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업무 보는 음압격리병실 관계자 10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노출자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음압격리병실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조 회유·협박 논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봉 인상'과 '회사 공중 분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고 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9일 광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포스코 노동탄압·인권유린실태 보고 대회'를 했다. 보고대회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의 회유와 협박 시도 유형 등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원청인 포스코의 개입 형태로, 광양제철소 외주 담당자가 2008년 사내하청업인 '성광' 지회장과 전 지회장에게 접근해 "기업별노조 전환 및 노사산업평화선언(임금위임·무분규·무파업)을 해주면 3년 안에 연봉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를 공중 분해해 비조합원은 6개월 임시직으로 받아 이후에 다른 하청업체로 넘기고 조합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임원 출신을 사내하청업체인 '덕산' 대표와 '성광' 전무로 갈 수 있게 하는 등 사내하청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의 노조 무력화 계획 문건(비노조원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등, 2011년 입수)을 공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임금과 격려금 차별 지급 실태도 전했다. 대책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전주 60대 메르스 환자, 접촉인원 다수

2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 3차는 양성… 재검 필요

전주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감염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박철웅 전북도 메르스 대책상황실장은 10일 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A씨(남·63)가 이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 순창 B씨(72·여)와 김제 C씨(59)에 이어 세 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온 전주시는 6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첫 사례여서 전북지역은 초비상이 걸렸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배우자의 암치료를 위해 동반내원 했다가 국내 메르스 6번째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지난 달 30일 오한과 발열 등 메르스 증세를 보여 이튿날(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 예수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2시 40분 메르스 6번째 환자와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고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A씨가 두 차례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3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판정이 나타나면서 기존 의심환자에 대한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가적인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A씨의 동선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고 있어 격리대상자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씨가 지난 2일 2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자 접촉자 92명에 대한 격리조치 해제와 A씨가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전주지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마저 나온다.

보건당국은 전주시 거주인구가 65만명에 달하고, 전주지역에 대형병원이 집중돼 주변 시군의 주민들이 대거 진료차 방문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순창과 김제의 확진자 발생과 달리 메르스 확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감염자를 포함해 10일 오전 메르스 확진자가 13명 추가로 확인돼 전체 환자는 108명으로 늘었다. 늘어난 확진자 13명 중 10명은 2차 유행 중심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모두 9명이 됐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용산, 세계 최대 전자상가로 거듭날까

전자상가 상인들
아키하바라 선언… 시큰둥 국회의원·대기업 안 믿는다

HDC신라면세점
상인회와 꾸준히 만나 소통 면세점용 쇼 아님 증명할 것



10일 방문한 용산 전자상가 전자랜드는 '국내 IT기기의 성지'라는 옛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있었다. /박상길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역 부근 '용산전자상가'. 우리나라 최대의 전자상가인 이곳은 나진상가·원효상가·선인상가·터미널상가·전자랜드 등이 모여있다. 컴퓨터·카메라·휴대폰을 비롯해 조명기기·음향방송기기 등 모든 전자제품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전자 제품의 메카이자 'IT기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용산전자상가는 전성기를 누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상가로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10일 기자가 찾은 용산전자상가는 썰렁하기만 했다. 이따금 모습을 드러낸 내국인 몇 명과 외국인 손님이 전부였다. 상인들은 무료한 듯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한 상가 상인은 텅 빈 상가 복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누가 여기옵니까. 인터넷에서 가격비교 다 해가며 사는데, 여기 위치한 점포들도 하나씩 나가고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곳이 다시 고객으로 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자상가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과 인근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한결같이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비교하고 찾아와 가격이나 제품만 확인하고 지나치기 일수"라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과 전자전문 할인점이 늘며 용산으로 향했던 고객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다. 고객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상가 상인인 일명 '용팔이'라는 일부 상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각인되며 고객들은 상가 방문을 더욱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현대산업개발(HDC·회장 정몽규)과 호텔신라(사장 이부진)는 면세점 유치 공약으로 '용산 아키하바라'화(化) 선언을 했다. 일본 아키하바라를 모델로 한 용산 전자상권의 부활 실현을 면세점 입찰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면세점·용산전자상가 공동마케팅 ▲전자상가 개보수 ▲면세점 상가 연결 시설 리뉴얼 ▲판매 품목 중복 최소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등으로 연간 용산전자상가 방문 관광객을 500만까지 늘린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세계 최대 IT강국이면서도 아키하바라 같은 세계에 내놓을 IT 도시가 없는 대한민국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키하바라는 전기제품에서 컴퓨터·가전제품 등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을 만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전자제품 상가이다. 각종 피규어·코스프레 의상 등까지 갖춘 아키하바라는 일본 오타쿠(한 분야에 깊이 빠진 극성 마니아) 문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1990년대 말부터 체질개선에 들어가 1970~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했다.

하지만 용산 아키하바라 선언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 상인은 "대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한다"며 "분명히 지켜봐라. 면세점되는 순간 모른 척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대충 내용은 들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야 바랄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과 대기업은 안 믿는다"고 말했다.

면세점 입점에 대한 큰 기대는 없으면서도 상인들은 용산전자상가의 부활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고 있었다. 용산전자상가 부활을 위한 방안으로 원스톱쇼핑망 구축과 함께 문화 마케팅의 필요성을 꼽았다.

카메라 상가에서 만난 상인은 "역에서 전자상가로 오는 길이 비교적 멀고 통로가 좁으며 길목엔 노숙자가 있는 등 시설이 낙후돼 있다. 편의시설도 적은 편"이라며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주 고객층인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손님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파크몰 가전제품 코너에서 만난 상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무한도전에서 유행했던 '토토가'와 같은 한류 콘서트가 진행된다면 공연을 보고 아이파크몰로 쇼핑하러 오는 손님이 많아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CCTV를 판매하는 또 다른 상인은 "상가 매장마다 비슷한 품목을 취급해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못 찾아 불편해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며 "이 부분이 개선되면 방문하는 손님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텍스 프리 환급 서비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등 결제 방식 간소화, 온라인 쇼핑몰 강화, 주차공간 확대 등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측은 현재 용산전자상가 상인회와 수시로 만나 전자상가 개선 방안을 조율하는 중이다. 상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신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껏 봐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최대 과제는 상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해 '면세점용 쇼'가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김성현기자 sweatsk@

윤여철 부회장, 내우외환… 점유율 하락에 영업노조까지 발목

현대차, 생산직 노조 파업으로 6월도 판매부진 예상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2013년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담당부회장으로 재입성한 윤여철 부회장(사진)의 발언이다. 죽다 살아온 윤 부회장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이번엔 영업사원 노조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국내외에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현대·기아차의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만4000대, 2만여대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3.2% 줄어든 수치다. 10일 종가 기준 현대차의 주가는 주당 13만4500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선 판매 현장의 혼란까지 예측된다. 현대차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영업노조)는 지난달부터 서울 삼성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판매 실적이 부진한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윤 부회장의 방침이 시위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업노조는 교육을 거부하고 '현장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육이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영업노조 측 입장이다.

영업노조는 최근 임단협에서 '영업직군 자동 승진제'를 제안했다. 승진 근무연한을 채운 영업사원이 최소 판매대수를 채우면 자동 승진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이 요구가 관철된다면 현대차의 임금부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또 직영점 수를 2017년까지 455개 이하로 유지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 7.8% 인상안 등도 임단협 요구사항이다.

생산직 노조가 파업할 경우와 달리 영업직 노조의 파업은 판매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현대차는 5월에 이어 6월도 판매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적이 나쁜 영업 사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당연한 조치"라며 "(영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당장 현대차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선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11일 임단협 3차 교섭을 진행한다"며 "교섭이 더 진행돼야 결과를 알겠지만 현재 요구가 무리하다는 사측 입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현대차가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조6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해 2012년 1조7048억원, 2013년 1조225억원, 2014년 919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

'메르스 vs 가계부채'… 이주열의 선택은?

유통·소비업종 '꽁꽁'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

가계대출 크게 늘어 인하땐 후폭풍 우려도

시장금리의 나침반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이냐 '가계부채 안정'이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향방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것이다.

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메르스 vs 가계부채' 선택은?

금리인하 기대의 배경에는 지난 4~5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산업생산과 수출부진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던 상황이 불과 한달 새 급변한 것이다.

특히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더 늘려줘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의 인하 시그널도 강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둔화 영향으로 생산·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야한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 금리인하 대세 속 가계 부채 방책은?

문제는 금리인하를 할 경우 직면할 후폭풍이 만만찮은 점이다.

우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계부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 역시 586조4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만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야 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향후 1년간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쉽사리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높아진 변동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금통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국고채 1년물은 말할 것도 없고 3년물마저 기준금리를 하회 중인데다 금통위 직후 FOMC의 여파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후 시장금리의 단기 향배 예상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금리 흐름이 관건"이라며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시각과 글로벌 시장금리 상승 시 맞물릴 경우 작년 5월과 마찬가지로 시장금리가 상당히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체크카드 찬밥신세?"

가계대출 우대금리 간극 '최대 6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카드별로 최대 6배나 다르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3%, 체크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우대금리 차이가 가장 컸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에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했고, 체크카드에는 최대 0.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6배 차이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신용카드에 최대 0.3%, 체크카드에는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해 3배 차이를 보였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배 차이를 기록했다.

우대금리를 아예 주지 않거나 신용카드에만 적용하는 곳도 있었다.

외환은행은 신용카드에만 최대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했고, SC은행은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하나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모두 최대 0.1%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은행권의 신용·체크카드 우대금리 간극에는 '수익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신용카드는 연회비 카드론 연체이자 등 부가수익이 있고, 사용실적도 체크카드에 비해 약 5배정도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밝혀보니 허언장담이었다"며 "시중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기는커녕 신용카드와 차별하는 행태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만 발표하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가계부채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코오롱-한국수출입은행 업무협약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코오롱타워에서 만나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5월 은행권 가계빚 7조3000억 급증

주택 경기 개선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 급증 등의 영향으로 7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700채로 2006~2014년 5월 평균 거래량(6300채)을 상회했다.

이 결과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2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은행권 기타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대출은 5월말 701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대기업은 차입금 상환에 나서 2조원이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기술신용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결제성자금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219조8000억)도 전달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밖에 은행의 5월 수신 잔액은 전달 1000억원 감소에서 15조6000억원이나 급증한 1303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3조3000억원 줄어들어 4월 14조2000억원 증가에서 5월 2조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백아란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경기 호조에 '잠잠'

도입 1년 넘었지만 증축 시행 아파트 예상보다 적어
재건축 연한 10년 축소·강남3구 주택거래량은 늘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당초 예상보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재건축 연한 축소와 주택경기 호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은 이날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시공사 입찰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업체는 "이 지역의 경우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따라 주민들에게 60% 이상의 사업승인동의서를 받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분당 매화마을 1단지(지난해 6월),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지난해 10월),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안양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올해 4월) 등도 시공사를 선정해 수직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 시공하므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전경. /뉴시스

다만 재건축보다는 적다하더라도 사업추진 분담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사업비 분담금을 30%가량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는 수직증축을 시행하는 단지는 많지 않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지 망설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연식 기준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당초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건이 미흡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비중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재건축의 경우 수직증축보다 많은 일반분양을 실시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의 호조세도 한몫 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5% 급증한 10만9872건에 달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3088건의 거래가 이뤄져 1년 전보다 117.3%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상대적으로 재건축·재개발과 거리가 먼 지방의 경우 18.3% 증가에 그쳤다.

대치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작년까지는 시세를 문의해오는 사람도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수직증축을 준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경기가 활발할 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GS건설, 부산 아파트시장 공략 강화

3년 만에 대규모 분양
연내 2881가구 공급

GS건설이 지방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지역명가 재건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GS건설은 1989년 럭키화학공장터에 건립한 동래 럭키아파트로 부산에 첫 진출한 이래 30여년간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2013년 3월 북구 금곡동 '신화명 리버뷰자이'를 마지막으로 2년 넘게 공백기를 가져왔다.

긴 공백을 끝내고 GS건설은 이달 해운대구 우동에서 공급할 '해운대자이2차'를 시작으로 연내 4개 단지, 288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하반기 부산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운대자이2차 조감도.

올해 첫 부산에서 공급할 '해운대자이2차'는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37~84㎡, 전체 813가구다. 이 중 48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에 앞서 진행된 조합원분양에서는 사흘 만에 100% 계약이 완료되는 등 지역 내 기대감이 높다.

김필문 GS건설 분양소장은 "해운대자이2차는 부산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며 "분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워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운대자이2차에 이어 10월에는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수영강자이(가칭)' 56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5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반경 1㎞ 이내 롯데마트, 반여농수산물시장이 있다.

12월에는 동래구 명륜동 명륜4구역을 재개발한 명륜자이(가칭)가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체 657가구, 39~84㎡로 이뤄졌다. 또 연제구 거제동에서는 거제1구역을 재개발한 847가구 규모의 '거제자이(가칭)'를 선보인다. 535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신규분양 외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 들어 광안1구역(1월), 부산재정비촉진 2-1구역(3월) 등 85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남구 삼익타워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정비 사업장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6월 주택경기지수 17.3포인트↓

전국 전망치 125.7

6월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전국적으로 전달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국 전망치가 125.7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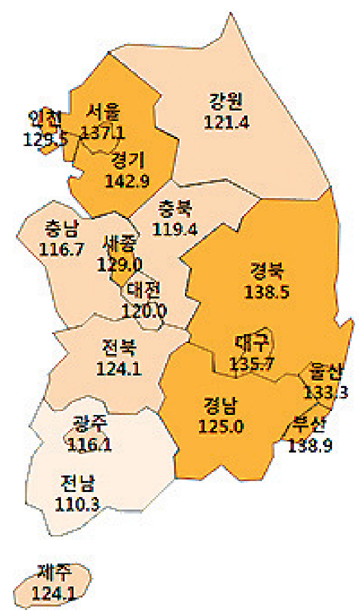
이는 전달보다 17.3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지수가 100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6월 주택사업환경지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하락했다. 서울은 전달보다 20.8포인트, 수도권은 13.8포인트, 지방은 4.7포인트 떨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42.9로 가장 높고 부산(138.9), 경북(138.5), 서울(137.1) 순이었다. 최저치는 전남의 110.3이다.

최고 상승지역은 전달보다 6.9포인트 오른 경북(138.5)이다. 최고 하락지역은 전달보다 22.6포인트 빠진 광주(116.1)다.

분양시장이 활기에도 불구하고 분양 관련 지수는 일제히 악화됐다. 분양계획지수는 전달보다 8포인트 내린 136, 분양실적지수는 5.2포인트 뒷걸음질 138.4로 전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미분양지수는 6.5포인트 오른 58로 파악됐다.



6월 주택사업환경 동향.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건설 수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들도 동반 하락했다.

재개발지수와 재건축지수는 각각 전달보다 6.6포인트, 5.2포인트 하락한 98.9, 105.7을 기록했다. 공공택지지수도 전달보다 6.5포인트 낮아진 123.5로 나타났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에 대한 건설사의 자신감 감소와 미분양, 지역적 편차 등 숨겨진 분양시장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분양계획 물량의 연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을 분양시장을 준비하며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대우·대림·금성백조, LH 1차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투택공사(LH)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심사 결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컨소시엄, 금성백조주택 등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가 자체 보유 부지를 민주택기금이 출자해 리츠형태로 운영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우선협력대상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사업계획을 거쳐 리츠를 설립하면 기금출자 심사를 진행해 출자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3개 지구는 화성동탄2신도시(1135가구), 위례신도시(360가구), 김포한강신도시(1770가구) 등이다.

화성동탄2 지구에는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이 회사는 '푸르지오 메종'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김포한강 부지를 차지한 금성백조주택은 이곳에 '김포한강 예미지'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증권株 뜬다

15일부터 ±15%→±30%
메르스 탓 금리 인하 기대

거래량·거래대금 증가
증권사 실적 개선 청신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주'가 오는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뿐만 아니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회전율 상승 기대도 증권주의 상승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다수의 금융 규제·통화정책 변수가 예정돼 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15일),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17일), 금융위 산하 금융개혁회의 1차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등이 있다.

특히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과 엔저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증권사의 거래 실적에 유리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이익을 높이는 등 증권사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시장 전망치가 1주일만에 금리 인하 쪽으로 확 바뀐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통위원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선 "금통위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마지막일 것이란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후 시장금리의 단기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미 국고채 1년물은 말할 것도 없고, 3년 물마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면서 "금통위 직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여파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도 증권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부터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된 후 일평균 거래량은 1억주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스피의 경우 1억주에서 2억3000만주로, 코스닥의 경우 3억6000만주에서 5억7000만주로 증가한 바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증권주엔 긍정적인 재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1분기 7조6000억원, 2분기 10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 거래대금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거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 2월 발표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면 공적 규제보다는 증권사들의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며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리스크에 따른 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고객 유인확대에 주력해 증권사들의 주 수익원인 신용거래 축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삼성물산-엘리엇 장기전 조짐… 주가 변동성 출렁

| 마켓인사이트 |

P&G, 웰라 인수때도 1년 끌어
ISD 등 국내외 소송전략 다양

갈등 확산에 투자 심리 꿈틀
합병비율 재산정 기대감 커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9일 이번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물산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경영참여 선언 이후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국내외 소송전 등 분쟁이 장기전으로 전망되면서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일대비 10.29% 상승하며 7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 4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지분 매입·합병 반대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했다. 발표 직후 주가는 전일대비 10.32% 뛰었고 5일에도 9.50% 상승했다. 8일에는 장중 8만400원까지 급등하다 공매도와 차익실현 매물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7.36% 하락했고, 9일에는 3.55% 떨어졌다.

이러한 변동성은 엘리엇이 차익을 챙겨 떠나기 전까지 혹은 소송전으로 번져 모든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 2003년 미국 P&G가 독일 웰라를 인수할 때 엘리엇이 법적 분쟁을 벌여 주가에 영향을 줬다.

당시에도 엘리엇은 P&G가 제시한 웰라의 주식 가치가 부당하다며 소액주주의 대우를 문제삼았다. 결국 1여년간의 주총 표 대결과 소송전을 벌여 주가를 12% 올리는 데 성공했다.

앞서 엘리엇 측은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취득했다는 공시와 더불어 불합리한 합병비율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보유주식을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쳐 주주가치를 높여줄 것을 삼성물산에 요구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을 상대로는 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엘리엇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 이력으로 보아 주총에서의 표대결과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엘리엇의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주주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해 우호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법원에 합병무효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거지인 미국이나 삼성물산 주식예탁증서 (DR)가 상장된 영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 나아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엘리엇 측이 문제삼은 합병 비율 산정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할지 알 수 없다.

이날 삼성물산 주가 강세는 이러한 엘리엇 시나리오에 거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재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경영권은 곧 삼성전자 지배를 의미한다"며 "삼성물산은 합병 무산 시에도 합병 비율 재산정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양측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중간배당과 합병비율 재산정 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증권가는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경기자 jkljkl@



동부證, 최고 연 8.0% 수익 ELB 등 5종 판매 동부증권이 12일까지 원금의 102%를 보장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8.0%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 등 총 5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동부증권 제공

삼성물산 우호지분 19.38% 확보

KCC에 자사주 전량 매각

삼성물산이 이사회를 열고 회사가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899만557주를 KCC에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KCC는 삼성물산 주식 899만557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KCC는 삼성물산 주식 931만557주(5.79%)를 소유하게 된다. 앞서 KCC는 8일 삼성물산 주식 0.2%를 매입한 바 있다.

계약 예정일은 11일이며, 장외 시장을 통해 매매될 예정이다.

KCC는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통한 시너지 제고와 전략적 제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날 공시를 통해 "회사 성장성 확보를 위한 합병 가결 추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KCC에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삼성물산은 우호지분으로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 19.38%의 지분을 갖게 됐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날 삼성물산 지분 1595만6368주(9.9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일 35만3000여 주를 장내 매수해 지분을 늘렸다.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까지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지분 싸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SK C&C 인터넷전문銀 본격 공략

銀 IT 인프라 구축 경험 활용… 플랫폼 개발 추진

SK C&C가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플랫폼 제공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K C&C는 내년부터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시중 은행 IT 인프라 구축 경험을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인 대 개인(P2P) 대출이나 특정 계층 대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 등 금융 특화 시장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 기업 등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과도한 초기 금융 시스템 투자 비용과 신규 서비스 개발의 문제로 사업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 C&C에 따르면 이기열 SK C&C 전략사업부문장 전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솔루션 사업 전략' 주제의 'SK C&C IT 현안설명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해결 방향으로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전용 시스템 개발 ▲전용시스템 소스 코드 사용 허용 통한 라이선스 수익 모델▲전용시스템 개발 공동 부담을 통한 투자 리스크 해소 ▲사용량 기반의 저렴한 IT서비스 이용 모델 등 4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각 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협력 모델을 고르면 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를 수용하는 '핀테크 뱅킹 플랫폼'을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빠르게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 'In 서울' 연구소 10월 오픈

'삼성 서울 R&D 캠퍼스' 임직원 공모로 명칭 선정 DMC 등서 7000명 이전

삼성전자 최초의 서울 소재 연구소 '삼성 서울 연구개발(R&D) 캠퍼스'가 문을 연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건설 중인 R&D센터의 명칭을 '삼성 서울 R&D 캠퍼스(Samsung Seoul R&D Campus)'로 확정했다고 10일 전체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의 집단 지성시스템 '모자이크(MOSAIC)'를 통해 직접 지었다.

지난 4월 R&D 센터 명칭 공모를 시작해 1000여건의 의견을 모았다. 7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삼성 서울 R&D 캠퍼스가 최다 득표했다.

삼성전자 최초의 서울 소재 R&D 거점이라는 의미와 대학 캠퍼스 같은 생동감을 강조한 이름이다.

삼성 서울 R&D 캠퍼스는 2012년 7월부터 33만㎡(10만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체 6개 동으로 이뤄진 첨단 R&D 센터다. 올해 10월 약 7000명이 입주한다.

R&D 캠퍼스에는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소프트웨어센터, DMC 연구소 임직원 등 7000여명이 이전해 근무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서울 SW 연구소, 수원 모바일·디지털 연구소와 소재 연구소,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임은정기자 eunj71@

美 MBA 교수진 '창조경제 모델' 대전서 찾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정부-기업 스타트업 육성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



10일 미국 와튼스쿨 교수진이 창조경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대전창조경제센터를 방문,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의 유명 경영대학원(MBA) 교수진이 '창조경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를 찾았다.

10일 대전센터와 SK그룹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의 MBA 교수 6명이 이날 오전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와튼스쿨의 국제본부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 참석차 지난 6일 8박9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국제본부는 매년 한 국가를 선정, 그 나라의 경제 산업 문화를 연구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해외 정부와 기업 관계자, 투자자 등 대전센터를 찾은 외국인은 많았지만 학술 연구차 대학교수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튼 스쿨 교수들은 창조경제 모델을 세미나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초기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 산업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민간협력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전센터 방문은 교수진이 직접 센터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센터에서 스타트업들을 둘러본 교수들은 대전센터를 비롯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사미르 누르모하메드(Samir Nurmohamed 조직경영)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주제가 돼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경제모델은 새롭고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협력사와 동반성장 문화 만들자"

손동연 두산인프라 사장 협력사 방문 상생 논의


9일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가운데)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협력사인 ㈜우진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9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협력사 (주)우진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우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계 부품 제조사다. 우진은 두산의 지원으로 생산정보 시스템 운영, 통합 레이아웃 개선을 통한 물류 낭비 개선 등을 추진했다. 작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협력업체 종합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

손 사장은 협력사 대표와 만나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제품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손 사장은 동반성장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과 내부 인력 육성 등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협력사와 두산인프라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체계화해 선순환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삼성전자-유니버셜 픽처스 '쥬라기월드' 공동 마케팅

美 시사회 첨단 IT제품 지원 애프터 파티에 체험존 설치

삼성전자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제작사 유니버셜 픽처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영화 '쥬라기 월드'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시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첨단 IT 제품으로 영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영화관 앞에 마련된 레드카펫 현장에 55인치 SUHD TV 6대로 만든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영화의 주요 장면과 인물들을 소개했다.



삼성전자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시사회장에 설치된 55형 SUHD TV 6대로 만든 대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배우들과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애프터 파티 현장에도 삼성 체험존을 설치해 참석자들이 SUHD TV 화질로 구현된 공룡 모습을 감상하고 영화의 스릴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화에서는 삼성 브랜드가 혁신적인 공간의 명칭으로 활용됐다. 테마 파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방문객 센터의 명칭이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로 등장한다.

등장 인물들도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고 영화 곳곳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가 등장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미국 베스트바이 500여개 매장에 SUHD TV에 최적화된 영화 예고편을 별도로 제작해 상영하고 있으며, 영화가 개봉되는 12일(미국기준)까지 상영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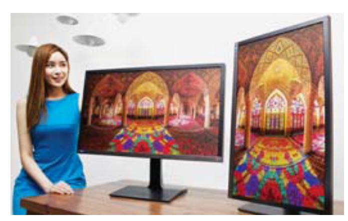
삼성전자, 2015년형 UHD 모니터 3종 출시

삼성전자는 2015년형 UHD 모니터 UE590(모델명 U28E590D), UE850(모델명 U28E850R·U32E850R) 3종을 국내 시장에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UHD 모니터 전 모델에는 프레임과 화면 재생 빈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한 AMD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됐다.

UE590은 UHD해상도에서 60Hz 입력이 가능한 HDMI와 DP 1.2(디스플레이 포트)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PC·게임기·AV 기기 등 외부 기기를 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UE850은 UE590의 모든 기능에 Mini DP 단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USB 3.0 4포트 허브를 내장했다. 또한 빠른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USB슈퍼 차징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신제품 UHD 모니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높낮이 조절, 화면 상하 각도 조절, 모니터 좌우 회전, 화면 가로·세로 변환도 가능하다.

2015년형 UHD 모니터는 화면 깜박임을 줄인 플리커-프리 기술과 블루 라이트를 감소시켜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아이 세이버 모드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U28E590D 69만 9000원, U28E850R 79만 9000원, U32E850R 145만원이다. /임은정기자

‘마이너스의 손’ 나완배, 남해화학 ‘기웃’

인천종합·청라에너지 대규모 손실 이어 또 투자 나서

<GS에너지 부회장>



GS에너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인천종합에너지와 청라에너지가 사업부진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와중에 나완배 GS에너지 대표이사(부회장·사진)가 남해화학의 전략적 투자자(SI)로 나섰다.

남해화학의 매출액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면서 나 부회장의 경영전략 등 안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억원을 기록해 전년 150억원에에 비해 3분의 1토막 났다.

당기순손실은 87억원을 기록해 전년(순이익 3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청라에너지는 지난해 1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GS에너지는 지난해 인천종합에너지와 청라에너지 지분을 각각 50%, 30% 인수했다.

양사 총 자산은 각각 3438억원, 4439억원 규모다.

통상 집단에너지사업은 주거단지나 상업시설이 구축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전까지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냉·난방 공급사업은 대규모 시설장비를 바탕으로 수요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에너지의 사업권역인 인천 경서동 소재 청라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응모를 지난 2월부터 진행했다.

하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열·전기 공급 사업도 기업 투자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부회장이 SI로 나서기로 한 남해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 18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5억원 감소했다.

매출액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 1조4688억원이던 매출이 2013년에는 773억원 감소하더니 지난해는 1398억원이 더 줄어 1조2517억원을 기록했다.

2년새 매출액이 217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손실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에 이어 남해화학의 투자 결정은 나 부회장의 경영안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나 부회장은 GS에너지 2012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늘려왔다.

지난해 말 기준 GS에너지의 타법인 출자 기업은 총 24곳이다. 이 중 16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이 가장 많았던 타법인은 GS칼텍스 6762억원이었고 GS플라텍(264억원), GS이엠(2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GS에너지는 자회사들의 실적악화로 별도기준 8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무배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나 부회장은 최근 UAE 원유 조광권 확보, 전남 바이오화학 산업단지 육성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GS에너지 측은 "보유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 지분은 GS에너지 총 자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K3·스포티지·쏘렌토, 멕시코 시장 출격

기아차, 하반기 신형 K5 투입

기아자동차는 내달부터 미개척 신시장인 멕시코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차 멕시코 판매법인(KMM)은 내달 멕시코시티 등 현지에 공식 대리점을 열고 K3(현지명 포르테),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내달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K5(JF)도 투입할 예정이다.

사측에 따르면 K3는 현지 생산공장 건설에 따른 무관세 수입쿼터의 혜택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된다.

스포티지와 쏘렌토는 각각 기아차 유럽과 미국공장 생산분이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멕시코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인 기아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멕시코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멕시코시티 등 현지 10개 도시에 21개 공식 대리점 개점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17년까지 대리점수를 6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판매 개시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 차원에서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를 활용해 기아차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아차는 멕시코 현지 판매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수출 활성화 등 해외 판매 증가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2년 99만대, 2013년 106만대, 지난해 114만대 수준으로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기아차는 지난해 8월 누에보 레온주 주정부와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정용기기자



FCA 서초 서비스센터.

“서초센터도 30분내 정비 완료”

FCA코리아 익스프레스-레인 확대

FCA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신속한 익스프레스-레인 서비스를 서초 서비스센터에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차량점검과 소모성부품 교환정비를 예약 없이도 방문 즉시 신속하게 제공한다.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대 30분 이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 서비스가 완료된다.

FCA 코리아는 강남과 이번 서초 서비스센터에 이어 이달 중 경기 및 부산지역에 익스프레스-레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LG전자, 獨서 태양광모듈 ‘네온2’ 선봬

19.5% 초고효율 프리미엄

LG전자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전시회 ‘인터솔라 2015’에서 태양광 모듈 신제품 ‘네온2(NeON2)’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네온2는 6인치(15.67㎝) N타입 웨이퍼 기준 19.5%의 세계 최고 모듈 효율을 달성한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이다.

네온2는 모듈 효율을 19.5%로 향상해 18.3%의 기존 제품이 낼 수 있는 출력(300W)을 320W로 끌어올렸다.

기존 제품은 셀 위에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3개였지만 네온2는 첼로 기술을 적용해 12개로 늘려 모듈의 출력을 높였다.

네온2는 빛의 세기가 약한 흐린 날이나 기온이 높은 한 여름에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개선해 기존 P타입 대비 연간 최대 7%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제품은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태양광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도 강화됐다. 모듈·프레임의 강화 설계를 통해 수직으로 누르는 1t 이상의 무게도 견딜 수 있다.

이충호 LG전자 솔라BD담당 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솔라 2015는 독일 뮌헨에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열린다. /임은정기자 eunj71@



LG전자는 ‘인터솔라 2015’에서 6형 N타입 웨이퍼 기준 세계 최고 ‘모듈 효율’을 구현한 태양광 신제품 ‘네온2’를 공개한다. /LG전자 제공

재규어, 신형 F-TYPE 라인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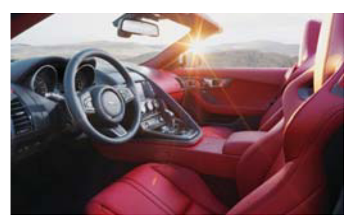
6단 수동변속기 추가 10종

재규어코리아는 스포츠카 신형 F-TYPE을 10일 국내 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신형 F-TYPE은 컨버터블과 쿠페에 F-TYPE 최초의 풀타임 사륜구동(AWD)과 6단 수동변속기 탑재 모델을 추가해 총 10개의 라인업으로 확대됐다.

F-TYPE에 최초로 탑재된 AWD 시스템은 악조건의 날씨와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F-TYPE 전 라인업(6단 수동모델 제외)에는 8단 퀵시프트 변속기가 탑재됐다.



F-TYPE R 컨버터블 AWD 인테리어.

재규어가 수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개발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AS)도 최초 탑재됐다.

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됐다.

신형 F-TYPE은 1억원 미만의 수동 쿠페 모델부터 1억8000만원대의 R AWD 컨버터블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coway
공 기 청 정 기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두려운 황사철엔
[황사 맞춤형필터]
새집증후군이 걱정된다면
[새집증후군 맞춤형필터]
우리집 공기주치의
코웨이 공기청정기
유해바이러스, 집먼지진드기가 말썽이라면
[헌집증후군 맞춤형필터]
유해가스가 생기는 주방엔
[유해가스 맞춤형필터]
코웨이 맞춤공기 케어
4종 맞춤형필터로 계절, 환경,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의 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건 오직 코웨이 뿐입니다
렌탈 및 구입문의 1588-5200 www.coway.co.kr
[APMS-1014D]
[AP-1013A]
[AP-1510BH]
[AP-2012EH]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
coway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우퍼 IPTV를 조작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U+ '우퍼 IPTV' 잘 나가네

하루 100대씩 팔려 나가 총 판매량 18000대 넘어

LG유플러스의 우퍼 IPTV 셋톱박스가 하루 100대씩 팔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세계 최초로 우퍼 스피커를 내장한 4K UHD 셋톱박스 판매량이 1만 8000대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 출시 이후 약 180일 동안 하루 평균 100대씩 꾸준히 판매된 것으로 작년 한해 동안 홈시어터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1600여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6개월만에 10배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한 셈이다.

이는 홈시어터에서 느낄 수 있는 입체음향과 4K UHD화질을 일체형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하면서도 월 기본료 9900원의 tv G 요금제 이용 시 임대료를 월 1만원(3년 약정·VAT별도)으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우퍼 IPTV는 4K UHD의 초고화질의 화면을 제공한다. 동시에 일반 TV의 15~20W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 음향을 제공하는 4.1채널 120W 출력의 스피커가 내장된 일체형 셋톱박스다.

기존에 홈시어터 이용 시 TV리모컨과 셋톱박스 리모컨, 홈씨어터 리모컨을 별도로 조작해야 했던 복잡함 없이 통합 리모컨 하나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하나로 통합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특히 지난달부터 롤리팝 운영체제가 적용돼 구글 플레이 게임을 TV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 음성검색, 구글캐스트 등 TV를 스마트폰처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라인, 모바일 O2O 서비스 돌풍 예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라인앳, 중국·대만·인도네시아 이어 한국 출시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소상공인 사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라인앳(LINE@)이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한다.

라인은 국내 라인앳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맹점 확보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라인앳은 2012년 12월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라인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다. 라인앳 계정을 개설하면 라인 메시지로 세일, 신상품 정보·할인쿠폰 등을 발송해 고객을 관리하고 일대일 대화 형식으로 고객 문의 응대와 예약 등이 가능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라인앳 계정은 33만 개 이상으로 알려진다.

이후 라인앳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어 출시되며 대표 모바일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인앳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인앳은 지난 두 달 간 한국 계정 2만여 개가 생성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별도 라인앳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계정을 생성하면 아이디와 QR코드가 함께 발급돼 친구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라인앳 계정만을 별도로 노출하는 카테고리가 신설돼 라인앳 계정 친구 확보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문경기자

SKT, IoT플랫폼 '씽플러그' 첫 선

국제 표준 'oneM2M' 기반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누구나 쉽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형 IoT 플랫폼 '씽플러그'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씽플러그는 IoT 국제 표준인 'oneM2M'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oneM2M' 표준을 준수하는 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씽플러그는 전용 웹 포털(https://sandbox.sktiot.com)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oneM2M은 지역별로 다른 M2M 표준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품을 호환할 수 없는 현실 개선을 위해 2012년 출범한 국제 표준이다.

씽플러그는 기업 및 개발자가 Io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기능과 원하는 IoT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씽플러그'가 적용된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닐하우스 내 온도 · 습도 등을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개발자는 씽플러그 웹 포털에서 제공하는 마더보드, 센서 등을 구입해 자신만의IoT 디바이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작·개발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된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웹 포털에 등록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IoT 서비스에서 보내는 정보를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기반의 맞춤형 위젯과 이벤트 설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정보를 쉽게 열람·분석하고 특정 상황 발생 시 SMS 등을 통해 알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전기회로기판 관리 서비스 출시

'올레 비즈메카 …' 중소 제조기업 대상



모델들이 국내 최초의 SaaS형 모델인 본서비스를 활용해 전자회로기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KT 제공

KT(회장 황창규)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레 비즈메카 전자회로기판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레 비즈메카 전자회로기판 관리' 서비스는 전자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전자회로기판와 펌웨어(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 시 필요한 부품, 설계, 펌웨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전자회로기판을 균일한 품질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고가의 구축형 솔루션이 필요했다. 이에 중소 제조기업들의 전자회로기판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레 비즈메카 전자회로기판 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회로부품관리 ▲회로설계관리 ▲펌웨어 관리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의 SaaS형(Sofr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 중소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자회로기판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요금은 ▲회로부품관리 ▲회로설계관리 서비스는 월 30만원이며 ▲펌웨어관리 서비스는 월 10만원이다. 약정 기간에 따라 5~15% 할인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기업에 한해 월 이용요금을 30% 추가 할인한다. /정문경기자

코오롱인더, 포드에 423억 규모 에어백쿠션 공급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이사 박동문)의 에어백쿠션이 포드의 4개 차종에 장착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부품업체 오토리브와 3년간 총 3800만 달러(약 423억원) 규모의 에어백쿠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 품목은 사이드 커튼 폴리에스터(PET) 에어백쿠션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미국 포드자동차의 몬데오, 링컨, 퓨전, 엣지 차종에 장착된다.

오토리브는 에어백 모듈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자동차 안전부품업체다.

이 업체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쿠션을 에어백모듈로 조립해 포드자동차에 납품하게 된다.

최영무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1본부장(전무)은 "최근 업계에선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내세운 PET 에어백이 주목받고 있다"며 "PET 에어백은 시장점유율이 아직 5% 미만에 불과하지만 4~5년 내 20~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한화 vs 유진, 여의도 면세점 품을까?

63 BD, MBC 사옥 놓고 경쟁
한화, 中企 전용관 운영
유진, 문화관광축제 개발



63빌딩 시내 면세점 외관 투시도. /한화갤러리아 제공


유진기업 면세점 예정부지인 '여의도MBC사옥' 전경. /유진기업 제공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한화갤러리아와 유진기업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서로 다른 군(群)이면서도 같은 입지인 여의도(63빌딩, 옛 MBC 사옥)에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의 최대 경쟁 상대는 신세계, 현대산업·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인 유진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는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얻게 되면 후보지로 정한 여의도 63빌딩 1개층 전체를 100개 이상의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로 구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 지하 1층과 63빌딩 별관 1~3층 등 총 4개층을 활용해 총 1만72㎡의 면세 쇼핑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1층은 럭셔리 부티크·화장품으로 구성하고 별관 1층에 시계와 주얼리 전문샵을, 2층에 국산화장품, 패션, 잡화, 담배, 주류를 배치한다.

특히 3층은 전체 공간을 '케이-스페셜 홀(K-Special Hall)'로 구성해 중소·중견 기업 100개 이상의 브랜드 전용관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63빌딩 면세점의 전체 면적 중 국산과 중소·중견 브랜드의 공간은 총 3003㎡다. 전체 면적의 34%를 차지해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권 참여를 계기로 상생펀드를 200억원 한도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는 "동반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책임 있는 면세 사업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진기업도 시내면세점을 유치하게 되면 면세점 사업을 영등포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진기업은 여의도 중심의 축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관광 축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등포 일대의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전용 투어 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새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우수중소기업 브랜드를 다수 발굴해 면세점 입점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면세점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하이마트 이동우 대표, 책임경영 통했다

유통업계 부진 속 선방
1분기 영업익 전년비 78%↑
'라이프스타일숍' 늘릴 것



롯데하이마트가 달라졌다. 롯데그룹이 지난 2012년 인수한 롯데하이마트는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승자의 저주로까지 불렸다.

그러던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1월 이동우 대표(56·사진) 체제로 돌입하면서 1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메르스라는 악재 속에서도 2분기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책임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투자증권은 올 2분기 롯데하이마트가 매출 1조167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38% 신장한 520억원을 예상했다.

롯데하이마트는 1분기 유통업계 전체적인 부진속에서도 매출 858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35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77.7%나 급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2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노리며 1조원 이상의 거금을 들여 롯데하이마트를 인수했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는 롯데마트 매장에 오픈하는 '숍인숍(점포 안 매장)'에 집중하면서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이런 롯데하이마트를 살릴 구원투수로 롯데그룹은 이 대표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롯데백화점에서 상품 소싱과 영업, 지원 분야를 두루 경험한 유통 전문가다.

특히 지난 3년간 롯데월드 대표로서 적극적인 마케팅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워터파크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취임 후 한 달 만에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고마진 생활가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 결과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승세를 타고 롯데하이마트 변신을 본격 꾀한다.

기존의 전자제품 전문 기업에서 라이프스타일 매장으로의 탈바꿈이다.

프리미엄 가전과 기업용 가전을 양대 축으로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부터 헬스, 완구 등 취미용품까지 매장에 입점시켜 매장 효율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4개의 라이프스타일숍을 실험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이 매장을 3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4개의 라이프스타일숍 테스트 매장 운영 결과 40% 수준의 집객 증가와 10% 수준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며 "생활가전 수요 증가와 그에 맞춘 품목의 다양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파리바게뜨, '라파주' 3만병 판매 기념 시음회 진행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파리바게뜨 이촌시그니처점에서 프랑스 와인 '도멘 라파주' 제조자 장 마크 라파주 대표(왼쪽)와 부인 엘리안느 라파주가 '도멘 라파주' 3만 병 판매를 기념하는 와인시음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배춧값 폭등… 포장김치 매출 12%↑

김장 부재료 가격도 상승

배춧값이 폭등하자 포장김치로 여름 김장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대상FNF 종가집(대표 이상철)에 따르면 5월 들어 포장김치 판매량은 전년대비 12%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가정용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1.7kg 제품이 상승된 판매량의 83% 이상을 차지했다.

또 백깍두기, 백김치 등 여름 김치 제품을 찾는 수요도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5월 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포장김치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한 포기당 2979원으로 1월 대비 58% 상승했다.

문성준 대상FNF 마케팅팀장은 "배춧값 상승으로 포장김치 시장에서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김치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발효홍삼으로 면역지켜요"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가 전국 1만3000여명의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유산균과 홍삼 제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한국야쿠르트, 면역강화 제품 출시

발효유에 특허유산균 첨가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라 기존 발효유에 면역강화 기능성 물질 2종을 첨가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생산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과 '메치니코프' 등을 포함한 발효유 16종 제품에 면역강화 기능성 미네랄 '아연'과 면역강화에 도움되는 '특허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HY7712)을 각각 10일과 16일부터 첨가해 생산한다.

아연은 면역기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국야쿠르트 측에 따르면 특허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2'는 면역강화 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에 도움이 된다. /김성현기자 minus@

미샤 '썸머 빅 세일' 최대 50% 할인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는 미샤 썸머 빅 세일을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일기간 동안 1400여 가지의 품목을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이벤트는 미샤 매장과 뷰티넷에서 진행된다. 특히 '금설 기윤 마무리 에센스' '수퍼아쿠아 울트라 바이오 에센스' 등 인기 제품을 포함해 시트마스크·바디·헤어·네일 컬러 전품목에 50%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이 기간 구매한 고객에게는 7월 한달 간 타임레볼루션 화이트큐어·마스카라·비비케익 등 일부 제품을 30% 할인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요거트를 더욱 맛있게 '썬업 후르츠 토핑'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플레인 요거트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썬업 후르츠 토핑 3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플레인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과일 3종(블루베리·딸기·사과)을 갈아 넣어 과일의 맛과 향을 풍부히 느낄 수 있다. 장내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분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돼 설탕보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칼슘 흡수는 도울 수 있게 설계됐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해외 디자인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 모집

KT&G(사장 민영진)가 국내 신진 디자이너의 발굴과 육성을 돕기 위한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참가자를 8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해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독일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인 코지올(koziol)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손세정제… 뭘 써야하지?"

메르스 여파 판매량 급증
향균 성분 함유 확인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우려로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비누의 경우 젖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오염되기 쉬워 액체로 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위생적이다. 특히 세정제에 들어간 에탄올 성분이 바이러스의 껍질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 메르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 세정제를 구매할 때는 세균·바이러스 제거에 탁월한 항균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비누 형태인 손 세정제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

세정제는 크게 액체(젤)와 거품형으로 나뉜다.

데톨 항균 핸드워시는 액체형 타입으로 검증된 항균 성분 PCMX을 함유해 각종 유해세균을 99.9% 제거해준다. 해피바스의 체리블러섬·오렌지블러섬·라벤더 등 3종류의 '핸드워시'도 98% 이상 균을 감소해준다. 천연 유래 성분인 페퍼민트 추출물과 편백수(편백나무 증류액)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녹차카테킨을 함유해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CJ 라이온 '아이! 깨끗해 항균 폼 핸드솝'은 항균 성분이 유해세균을 99.9%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거품타입이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품으로 통한다. 파라벤·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테스트 완료로 자주 손을 씻어도 피부에 자극이 없다.

네이처리퍼블릭의 '핸드 앤 네이처 클린 핸드 솝'도 거품 타입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준다.

한편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후인 지난주(6월 1일~7일) '메소드 핸드워시' 매출은 전주보다 400% 이상 증가했다. 메소드 핸드워시는 액체형으로 美 연방환경청(US EP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했다. 세제의 전(全)성분을 표기하고 있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핸드워시 3종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판매량이 전 주대비 1146% 급증했다.

이 외에 손 세정 전용 물티슈 판매량도 뛰었다. 깨끗한나라 99.9% 안티박테리아 물티슈의 5월 매출은 전달 대비 25~30% 상승했다. 이달은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업체 측은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상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며 "개인위생용품 활용 외에도 손씻기 생활화, 기침 에티켓 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옛 맛 찾는 소비자… 식품업계 '복고바람'

추억의 히트상품 재현
불황 마케팅에 소비자 호응



식품업계에 '복고바람'이 거세다. 과거 단종됐거나 잊혀져 가는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해태제과는 10일 연양갱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검은깨를 넣어 만든 '흑(黑)연양갱'을 내놓았다. 흑연양갱은 기존 제품보다 단맛을 줄이고 검은깨를 통째로 넣어 고소한 맛과 향이 더 풍부하다. 견과류나 곡물을 분말 형태로 첨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검은 참깨를 통째로 넣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달 초 부라보콘 출시 45주년을 기념해 120만개의 스페셜에디션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한 달도 안돼 전량 완판됐다. 회사 관계자는 "뜨거운 시장 반응으로 인해 최대한 빨리 추가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은 지난 9일 7080 추억의 얼음과자 아이차 2종을 출시했다. 차가운 소다 음료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차 소다와 콜라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이차 콜라 등 2종으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부활시켰다. 아이차는 1974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튜브형 빙과 제품이다. 출시 당시 하루 18만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롯데푸드도 이달 1962년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를 통해 만들었던 아이스바 삼강하드를 재출시했다. 삼강하드는 우유 맛을 더욱 진하게 업그레이드 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높아진 요즘 입맛을 만족시켰다.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복고풍을 살린 폰트와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말 전통적인 팥빙수 맛을 되살린 '그때 그 시절 국산팥 빙수'를 내놨다. 원조 팥빙수의 맛을 제대로 살린 제품이다. 곱게 간 얼음에 100% 신안 팥과 국산 찹쌀 떡·콩고물만을 사용해 전통 팥빙수 본연의 맛을 충실히 되살려냈다는 평이다. 이색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보다 팥빙수의 본질에 집중해 '그때 그 시절의 맛'을 재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제시하는 모험보다는 소비자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기존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며 "식품업계의 복고바람은 불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동원 '4세대 참치' 건강 담았다

'건강한 참치' 3종 출시
셀레늄·오메가 등 첨부 나트륨 함량 절반 낮춰



동원F&B(대표 박성칠)는'동원 건강한 참치' 3종(셀레늄엽산·오메가369·저나트륨)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중에 출시된 참치캔들이 가미소스나 유지, 제조법 등의 변화를 통해 맛이나 식감, 형태를 다르게 했다면 동원 건강한 참치 3종은 건강성을 더욱 강화한 4세대 참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미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치에 비타민, 셀레늄,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원료를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영양에 초점을 둔 동원 건강한 참치 셀레늄엽산은 여성건강에 좋은 셀레늄, 엽산 등을 추가로 담았다. 150g 한 캔으로 셀레늄은 성인 1일 섭취 기준의 90%, 엽산은 6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

활력을 강조한 동원 건강한 참치 오메가369는 오메가3에 들깨유, 해바라기유 등을 통해 오메가6와 오메가9까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균형있게 담았다.

동원 건강한 참치 저나트륨은 감마올리자놀이 풍부한 현미유를 담았으며, 동원만의 나트륨저감화 기술력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한편 동원F&B는 최근 김혜자씨를 모델로 참치의 건강성과 활력을 담아낸 '참치가 있어, 건강이 있다' TV광고를 선보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캐니멀 광고 역시 'TUNA POWER'라는 콘셉트로 건강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 국민삼둥이 대한·민국·만세를 모델로 기용해 '대한민국만세 참치' 한정 기획상품을 출시하는 등 건강 콘셉트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메르스 신속 대응 눈길

응급실 밖 임시 진료소 설치 일반-의심환자 동선 분리

이대목동병원(병원장:유권)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에 따른 초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8일 양천구 메디힐병원에서 폐렴증상으로 이송된 환자 A씨(남·58세)를 메르스 감염 환자로 의심해 바로 음압격리실에서 검사·진료를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가 의뢰되어 9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역학조사반과 질병관리본부 조사반에 따르면 A씨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지인 병문안차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증세가 있은 후 개인병원 2곳을 방문하고 메디힐병원에 5일간 입원 후 상태 악화로 이대목동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한 상태로 구급차로 이송된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의 완벽한 감염 대응 조치로 이대목동병원 내원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교직원과 시설에 대해서도 감염 노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는 역학조사반의 CCTV 분석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대목동병원의 초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료진·내원객·시설물 전반에 대한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음압격리실에서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중에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전원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별도의 임시 진료소를 응급실 외부에 분리 설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증상의 내원객의 병원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별도의 음압격리실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손상된 장기에 붙이는 '세포 스티커' 나온다

서강대 신관우 교수팀 개발

서강대학교 신관우 교수 연구진이 손상된 장기와 피부에 붙여 회복을 돕는 "세포 스티커"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대면적으로 단백질 그물망(protein network)을 조성하고 동물의 장기에서 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결과, 세포가 그물망 위에서 정상적인 장기 조직의 기능을 갖고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세포-단백질 그물망을 스티커처럼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동 연구 결과 활용하여 인체 거부반응이 없는 안전한 장기와 신경세포 치료가 기대된다.



서강대학교 신관우 교수와 하버드대학교의 바이오질병연구소가 함께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신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Advanced materials)지 5월 13일자 표지논문(Front Cover)에 발표됐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2014년 9월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손상된 장기와 신경의 특정 부위에 세포를 자라게 해손상을 회복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보형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조직 내 세포들이 인공조직과 원활히 접합하여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인공물이기에 자연적 접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복현명기자 hmbok@

여름에도 산뜻한 'Y존' 비결은?

불쾌감 관리 노하우 공개



때이른 더위와 겹친 생리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상기온 탓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유달리 생리 중 겪게 되는 호르몬 변화와 Y존의 불편함이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비법을 실천에 옮겨보자.

◆ 생리 전후 사용하는 여성청결제 하우동천 질경이

무더운 여름 두터운 여성용품 착용으로 불쾌하거나 통기성이 좋은 짧고 얇은 옷 때문에 혹시라도 냄새가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생리전용 여성청결제 하우동천 '질경이'(사진)가 큰 도움이 된다. 하우동천 질경이는 생리 전후 사용하면 그날의 냄새, 가려움 등 불편함을 없애줘 여름철 불쾌지수를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생리 후에는 상쾌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신개념 여성청결제다.

자연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진 하우동천 질경이는 다른 여성청결제와는 달리 고체의 정제 형태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여성의 건강한 Y존 관리에 도움을 준다. 올 여름철 Y존 관리가 신경 쓰인다면 생리전용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 여름 레저활동시 좋은 유한킴벌리 화이트 탐폰

운동과 야외활동을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탐폰 시장은 5년 새 50% 이상 성장했다. 질내 삽입으로 사용하는 탐폰은 생리 기간에도 수영이나 목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놀이와 레저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탐폰을 찾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킴벌리의 화이트 탐폰은 손잡이 부분에 실리콘 재질의 핑크 젤 그립이 있어 삽입 시 미끄러움을 방지한 제품이다. 부드럽고 슬림한 어플리케이터로 처음 사용시에도 부담감이 덜하다. 여성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화이트만의 뛰어난 흡수력도 장점이다.

◆ 여름에 더 심해지는 생리 전 여드름 관리, 더바디샵 티트리 오일

여름은 땀과 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여성들은 생리 시작 1주일 전부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턱 주변에 여드름이 자주 발생한다. 약 한 달을 주기로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거뭇거뭇한 흉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두꺼운 화장이 불편한 여름철 더 고민될 수밖에 없다.

여드름을 제거해주는 원료로 유명한 '티트리'는 호주 원주민들이 항균, 항염 등을 위해 일찍이 사용되어 왔다. 더바디샵 티트리 오일은 케냐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한 질 좋은 티트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트러블 관리에 유용하다. 또한 미네랄 오일, 인공색소, 라놀린 등 트러블 유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세종사이버대 이은경 교수 '한국어 교육입문' 출간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이은경 교수가 한국어 교육현장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알기 쉽게 풀어낸 '한국어 교육입문-교육현장 편'(사진)을 출간했다.

이은경 교수의 '한국어 교육입문 - 교육현장 편'은 저자가 14년 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바탕이 됐다. 한국어 교사 입문 과정과 강의 현장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은경 교수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2001년부터 14년간 근무했고 올해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신설된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이번 책은 교육 이론만을 딱딱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효과적인 강의법,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 요령 등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의 이모저모를 흥미있게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어 교사에 관심이 높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현명기자

고유한 정체성, 그게 곧 매력이죠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엄지원



엄지원(37)은 충무로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곽경택·홍상수·김현석·이준익 등 충무로 대표 감독의 작품들, 그리고 '박수건달'과 같은 상업영화로 채워진 필모그래피가 그녀의 개성을 잘 보여준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로 사랑 받았지만 매 작품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2013년 '소원'에서는 생애 첫 엄마 역할로 뜨거운 모성애를 그려 271만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신경질적인 교장 역할로 생애 첫 악역
액션에 일본어 연기까지 새로운 도전
결혼 후에도 작품 보는 시선은 똑같아

오는 18일 개봉하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하 '경성학교')에서 엄지원은 또 한 번의 변신을 감행한다. '페스티벌'로 만난 이해영 감독과의 인연, 그리고 복합적인 장르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끌려 선택한 작품이다.

영화는 1938년 경성의 한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소녀들의 실종 사건을 그린다. 박보영과 박소담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학생 주란과 연덕을 연기했다. 엄지원이 맡은 교장은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이들을 점점 위기로 몰아가는 악역이다. 엄지원은 "교장은 시대를 잘못 만나 비뚤어진 열정을 갖게 된 똑똑한 여자"라며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워킹 우먼'이 됐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신경질적인 인물을 연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와이어 액션도 처음 도전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어 연기는 이번 영화에서 엄지원이 보여주는 가장 새로운 모습 중 하나다. 교장은 첫 등장은 물론 중요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일본어로 연기를 한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혼재해서 쓴 1930년대를 사실적으로 보여고 교장의 캐릭터를 보다 극명하게 그리기 위한 설정이다.

엄지원은 "매 작품 첫 신을 가장 신경 쓴다"고 말했다. 첫 등장부터 '연기하는 인물'이 아닌 '진짜 인물'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교장의 첫 등장이 일본어 대사였기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 전 3개월 정도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영화를 위해 새로 배우는 기분으로 다시 일본어를 익혔다. '페스티벌'에서 엄지원에게 영어 연기를 시켰던 이해영 감독은 "엄지원은 외국어 연기의 천재"라며 치켜세웠다.

캐릭터 성격 상 혼자 있는 장면도 많다. 자연스럽게 촬영장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악역이었지만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많이 생겼다. 촬영 마지막 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예전에는 마지막 촬영 때마다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교장의 감정이 그만큼 많이 남았었나 봐요. 깊이 사랑한 캐릭터였어요."

엄지원은 지난해 5월 말 '오기사'로 잘 알려진 건축가 오영욱과 결혼했다.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겪은 만큼 배우로서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엄지원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다면 조금 넓어진 세계관을 갖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똑같다"며 웃었다. 배우로서 바라는 것도 다른 배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보여주지 못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는 것이다.

"영화도 사람도 매력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만이 지닌 고유한 모습이 곧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정규 6집 '그리고…' 발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정규 6집 앨범 '그리고…'를 10일 정오 온라인에서 먼저 발표했다. 2012년 11월 발표한 5.5집 '숲' 이후 2년 7개월여 만의 신보다. 타이틀곡은 '그리고 안녕'으로 김도훈 작곡가가 참여했다. 오프라인 판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김범 연인으로 깜짝 출연



배우 **김지원**이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극 '신분을 숨겨라'에서 김범의 연인으로 깜짝 출연한다. 김지원이 연기하는 민태희는 김범이 연기하는 형사 차건우가 냉혹한 인간병기로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인물로 아련하면서도 청순한 매력을 선보인다.

가수·예능 이어 MC까지



가수 **지나**가 아리랑TV의 신설 프로그램 '조인 어스 코리아'의 MC를 맡는다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10일 전했다. 지나는 '조인 어스 코리아'의 간판 진행자로서 꾸밈없는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개그맨 김성원이 공동 MC로 함께 출연한다. 오는 18일 첫 녹화 예정이다.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소속사 스타하우스가 10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이민호 마스크팩'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To pee or not to pee
뮤지컬
유린타운
URINETOWN
THE MUSICAL
2015. 5. 17 - 8. 2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김승대 정욱진 아이비 최정원 성기윤 이경미 김대종 최서연 이동근 외
Music and Lyrics Mark Hollmann Book and Lyrics Greg Kotis 제작 신시컴퍼니
연출 이재은 음악 수퍼바이저 김문정 음악감독 구민경 안무 Sam Viverito 협력안무 황현정 무대 인혜란 조명 민경수 음향 김기영 협력음향 지승준 의상 백경진 분장 김유선 소품 최혜진 무대감독 이수헌
URINETOWN was produced on Broadway in September, 2001 by the Araca Group and Dodger Theatricals in association with Theater Dreams, Inc. and Lauren Mitchell
"URINETOWN, THE MUSICAL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erformance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421 West 54th Street, New York, NY 10019 USA Phone 212 541 4684 Fax 212 397 4684 www.MTIShows.com"

올 여름 핫한 걸그룹 줄줄이 컴백

AOA·씨스타 22일 복귀… 소녀시대·걸스데이도 내달 출격


씨스타


걸스데이

올 여름 가요계의 화두는 단연 걸그룹의 컴백 전쟁이다.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은 여름 가요계 걸그룹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짧은 치마' '단발머리' '사뿐사뿐' 등의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목 받았던 AOA는 오는 22일 세 번째 미니 앨범 '하트 어택(Heart Attack)'을 발표하고 컴백한다.

타이틀곡은 '심쿵해'다. '단발머리'에서 코스튬 플레이를, '사뿐사뿐'에서는 캣우먼 콘셉트를 보여준 AOA는 이번 '심쿵해'에서는 스포츠 선수로 변신해 건강미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다.

여름 시즌마다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씨스타도 AOA와 같은 날 컴백한다. 씨스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SNS와 멤버들의 개인 SNS를 통해 멤버들의 실루엣을 담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들어갔다.

씨스타는 '기브 잇 투 미' '러빙 유' '아이 스웨어' 등의 히트곡을 함께 한 이단옆차기의 곡으로 컴백한다. 22일 미니 앨범 발표와 함께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컴백 무대에 오른다.

걸스데이도 씨스타에 이어 이단옆차기의 노래로 다음달 6일 컴백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달링' 발표 이후 1년 만의 컴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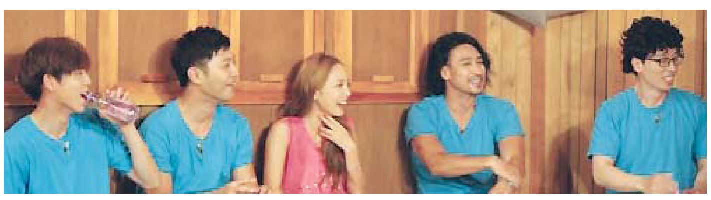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타이틀곡 선정이 오래 걸려 애초 계획보다 컴백이 많이 늦어졌다"며 "신중하게 곡을 결정한 만큼 많은 분들이 걸스데이의 새 앨범을 좋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녀시대도 7월 중 컴백할 예정이다. 멤버 수영은 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얀색 의상을 입은 소녀시대의 모습을 공개하며 컴백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10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태국으로 떠났다. 제시카 탈퇴 이후 첫 국내 공식 활동인 만큼 팬의 궁금증도 크다.

이밖에 에이핑크와 나인뮤지스 등이 올 여름 컴백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다. 각기 다른 콘셉트로 출격을 예고한 걸그룹의 활약이 가요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기적남녀의 근황 토크쇼

◆ KBS2 '해피투게더' 오후 11시 10분

원조 테리우스에서 '신엄마'로 돌아온 신성우와 인형 같은 외모의 소유자 구하라, 짝사랑했던 여자와 결혼까지 골인한 진구, 마의 16세를 잘 넘기고 훈훈하게 잘 자라준 이현우, 개그콘서트의 새로운 실세로 등극한 유민상, 그리고 4개월 만에 무려 70kg 감량한 개그맨 김수영이 근황을 전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tvN '성적욕망'

오후 8시 40분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성적 향상 욕망을 채워주는 1등급 교육토크쇼가 펼쳐진다. 교육계 최고 강사들이 전하는 교육 정보와 입시 전략을 알아본다.



◆ JTBC '님과 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안문숙의 절친인 이경애와 이경실에게 김범수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두 사람이 짓궂은 농담으로 김범수를 당황하게 만들자 안문숙은 폭발하고 만다.



◆ tvN '문제적남자-뇌섹시대'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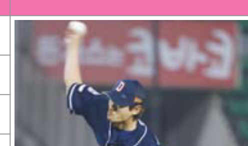
여섯 남자들이 프로그램 홍보 영상 제작에 도전한다. 훈남 배우에서 광고 감독으로 깜짝 변신한 이기우가 도우미로 나서 숨겨진 연출 실력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0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49회)	15 불굴의 차여사 (110회) 55 MBC 뉴스데스크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4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6회) 55 대단한 레시피 (2회)	55 딱 너 같은 딸 (19회)	20 SBS 8 뉴스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8회)	00 맨도롱 또똣 (10회)	00 가면 (6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가타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통의 신바람이 분다	15 해피 투게더	15 어게인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안녕! 우리말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31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7회) (재)				40 주말 N 영화 (516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LG (SPOTV+) 한화 vs 삼성 (MBC SPORTS+) KT vs 롯데 (SKY SPORTS) 넥센 vs KIA (SBS SPORTS) NC vs SK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27·68·69회)	00 쇼킹 70억 (16회)	40 퍼스트 어벤져	
20시	50 JTBC 뉴스룸	40 성적욕망 (1회)	30 올리브쇼 2015 (20회)	00 아시아의 열대 -3부 파푸아의 노래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6회)	40 한식대첩 3 (4회)	30 한식대첩 3 (4회)	00 2015 쥬라기 스페셜 나노티라누스의 역습		
22시				00 2015 쥬라기 스페셜 전격 해부! 티라노사우루스	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3시	00 썰전 (119회)	00 문제적 남자 (16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4회) 20 오늘 뭐 먹지? (70회)		10 만추	
24시	20 5일간의 썸머 (4회)	20 집밥 백선생 (4회) (재)	00 한식대첩 3 (4회)	00 콜드 워터 골드 (3회)		



10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지소연이 골대를 향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지소연만 날았다

FIFA 여자월드컵

전체적 부진… 브라질과 첫 경기 0-2 패
통산 최다골·최고령 골 기록만 헌납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 기록의 빌미를 제공하며 첫승 사냥에 실패했다.

한국(FIFA 랭킹 18위)은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E조 1차전에서 FIFA 랭킹 7위 브라질에 0-2로 패했다. 2003년 미국 월드컵에서 0-3으로 졌던 브라질을 상대로 설욕을 노렸던 한국은 12년 만에 다시 만난 브라질에게 또다시 영패를 당했다.

한국은 유영아(현대제철)가 최전방 공격수, 지소연(첼시)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전가을(현대제철)과 강유미(KSPO)가 좌우 측면 공격을 맡았다. 미드필더는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현대제철)이 나섰다. 수비에는 이은미·심서연(이상 이천대교), 김도연·김혜리(이상 현대제철)가 포백을 구성했고 맏언니 김정미(현대제철)가 골문을 지켰다. 기대를 모았던 박은선(로시얀카)은 발목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

전반 4분 파비아나가 골대를 맞히는 중거리슛을 날리며 브라질은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전반 20분에는 크리스티아니의 왼발 중거리슛이 골대 위로 살짝 빗나가는 등 한국은 경기 주도권을 내줬다.

결국 한국은 전반 33분 수비수 김도연의 백패스 실수로 브라질 베테랑 포르미가(37)에게 첫골을 헌납했다. 이 골로 포르미가는 6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며 브라질 여자 대표팀 역대 최고령 골을 기록하게 됐다.

후반에도 브라질의 공세는 계속됐다. 후반 8분 한국팀 주장 조소현은 선제 득점의 주인공 포르미가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부딪히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브라질 공격수 마르타는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켜 팀에 두 번째 골을 안겼다. 마르타는 이 골로 월드컵 통산 15호골을 기록해 공동 선두였던 비르기트 프린츠(독일)를 제치고 통산 최다골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후반에 '지메시' 지소연의 움직임이 뒤늦게 살아나 아쉬움을 남겼다. 지소연은 후반 26분 드리블로 수비를 제친 뒤 전가을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골찬스를 만들었다. 후반 35분에도 전가을과 호흡을 맞춰 기회를 만들었지만 끝내 브라질 골문을 열지 못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E조 스페인(14위)과 코스타리카(37위)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 한국은 E조 최하위로 밀렸다. 한국은 14일 오전 8시 몬트리올에서 코스타리카와 2차전을 치른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프랑스, 유럽 라이벌 잉글랜드에 신승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멍크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F조 1차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고 기뻐하는 프랑스 선수들. /AP연합뉴스

콜롬비아·멕시코 1-1 무승부

FIFA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프랑스(3위)가 라이벌인 잉글랜드(6위)를 꺾었다.

프랑스는 10일 새벽 2시(한국시간) 캐나다 멍크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F조 1차전 잉글랜드전서 1-0으로 승리했다. 전반 29분 유지니 르 솜머가 환상적인 중거리슛으로 넣은 득점을 잘 지켰다. 점유율 58%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 프랑스는 슈팅 16개를 시도하며 잉글랜드의 골문을 공략했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F조 첫 경기서 유일하게 승리한 프랑스는 조 선두로 올라섰다.

콜롬비아(28위)와 멕시코(25위)의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베로니카 페레스의 선제골로 앞서나갔지만 후반 37분 다니엘레 몬토야에게 중거리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을 얻었다. /하희철기자

◆ 10일 전적

▷ E조

스페인(1무) 1(1-1 0-0)1 코스타리카(1무)

▷ F조

프랑스(1승) 1(1-0 0-0)0 잉글랜드(1패)

멕시코(1무) 1(1-0 0-1)1 콜롬비아(1무)

추신수, 시즌 14번째 멀티히트

강정호, 대타 출전 삼진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멀티히트(1경기에 2안타 이상)를 치면서 타격감을 되찾았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 이후 두 경기 만의 멀티히트다. 이로써 시즌 14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241에서 0.246(203타수 50안타)으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회초 1사에서 오클랜드 선발 소니 그레이를 상대로 4구째 낮게 제구된 직구(153㎞)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으로 가는 안타를 쳤다. 7회초 2사에서는 페르난도 로드리게스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깨끗한 우전 안타를 치고 멀티 히트를 완성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과 선발 닉 마르티네스의 6이닝 1안타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28)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8회말 선발 투수 프란시스코 리리아노를 대신해 선두타자로 타석에 나서 밀워키의 두 번째 투수 제러미 제프리스와의 대결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로써 시즌 타율이 0.268에서 0.266(128타수 34안타)으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1-4로 패해 2연패에 빠졌다.

/하희철기자



10일(한국시간)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출루에 성공한 클리블랜드 추신수. /AP=연합뉴스

메시·네이마르 동료서 라이벌로

코파 아메리카 11일 개막

올시즌 트레블을 달성한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8·아르헨티나·사진)와 네이마르(23·브라질)가 동료에서 라이벌로 돌아갔다.

메시와 네이마르는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칠레에서 열리는 2015 코파 아메리카에 자국팀 대표로 출전한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 회원국 10개국과 초청국인 멕시코와 자메이카 등 총 12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이들이 펼칠 활약상이다.

메시와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28·우루과이)와 함께 'MSN' 트리오로서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122골을 합작해 6년 만의 트레블(리그·국왕컵·챔피언스리그)을 달성했다. 수아레스는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대 수비수를 물어뜯어 A매치 출전 징계를 받아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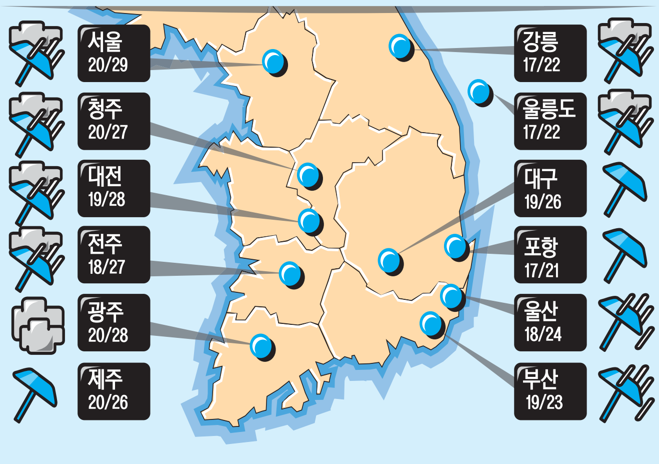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파라과이·자메이카 등과 함께 B조에 속하게 되 메시는 수아레스가 없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에서 맞붙게 됐다.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은 콜롬비아·페루·베네수엘라와 C조에 속했고, 개최국 칠레는 멕시코·에콰도르·볼리비아와 한 조(A조)가 됐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지난 대회에서는 7위와 8위에 머물러 이번 대회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지난 대회에서는 수아레스의 우루과이가 파라과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하희철기자

날씨

6/11 목 일출시각 05:10 일몰시각 19: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1	8				
	2	4	9		5			
			4	2		7		
4					8		5	
	1				9	4	3	
8	6					9	7	
	4	1	2			6	8	
		2		6				

2								6
			3		9			
5	7			8			4	2
				6				
3	6						7	4
	8		7		5		6	
			1		8			
	1	4		3		6	9	
	2						3	

스도쿠 정답

5	8	7	3	4	6	1	2	9
3	9	6	1	8	2	5	4	7
1	2	4	9	7	5	8	6	3
6	3	5	4	2	1	7	9	8
4	7	9	6	3	8	2	5	1
2	1	8	7	5	9	4	3	6
8	6	3	5	1	4	9	7	2
7	4	1	2	9	3	6	8	5
9	5	2	8	6	7	3	1	4

2	9	8	5	7	4	3	1	6
6	4	1	3	2	9	7	5	8
5	7	3	6	8	1	9	4	2
1	5	7	4	6	3	2	8	9
3	6	9	8	1	2	5	7	4
4	8	2	7	9	5	1	6	3
9	3	6	1	5	8	4	2	7
8	1	4	2	3	7	6	9	5
7	2	5	9	4	6	8	3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Samsung X file incident is emerging once more. This is the incident where presidential nominee, prosecutor and total directional Samsung lobby took place.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give and take of the black money were found acquitted. Actually, the reporter who publicized this event and NoHye Chan congressmen remained ex-convict. This conclusion was made because of monopolism and Imperial prosecutor's policy.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246, prosecutors are the only people who have the right of arraignment. The right of accusation was limited to the prosecutors in order to limit and standardize the right of arraignment. But this created authoritative non-indictment and non-authoritative indictment in this country.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매수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관련 증거물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사건이다.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됐다.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업 계속할 지 친구회사 들어갈 지 고민입니다
적더라도 정기적 월급 받는 곳에서 일하시길

다단계 남자 68년 2월 18일 양력 6시10분경

Q 직업이나 직장선택 문제 장래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 역시 직장문제를 상담 하겠습니다. 제생일은 1968년 2월 18일 양력 6시10분쯤인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공고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 하다가 지금은 다단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지만 설명회에서 들은 바대로 대박 날 일이 없어 고민 입니다. 여러 다단계를 전전해 보았지만 처음 시작 할 때 보다는 실망이 많습니다. 그러던 차에 학교 동창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머시닝센터 작업자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A 사주는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주만으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운의 흐름인 운세는 사주를 받쳐주는 가장 큰 기운인데 운세가 사주의 행로를 바꾸기도 하며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운세가 힘을 잃으면 사주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왕과 거지의 사주는 분명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어떤 사주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 힘듭니다. 운세에 따라서 완전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8년생 굳이 숫자로 얘기해 본다면 귀하는 사주팔자 안에 관성(官星:나를 극함)이 4개나 되어 있으며 관살이 많다는 것은 나쁜 중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극하는 글자이니 감당하기가 어려운 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화위강(弱化爲强:약한 것이 변해서 강하게 됨)이 되어 길명의 사주가 되기도 하는데 2015 을미년이 되어 천을귀인(天乙貴人:귀인이 도움을 줌)이 도와주니 친구회사의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귀하는 '화산의 형상'으로 만심(慢心)을 품을 때가 있고 대개 완고하며 융통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고독하며 불사(佛事)에 깊은 관심을 두기도 하고 외견은 군자지만 앉은 자리가 뜨거워 불안정한 기운이 서립니다. 다단계를 하려면 주변에 친척이나 친지, 친구 지인들과의 신뢰가 돈독해야 하며 평소에 베풂이 많아 그들이 잘 따라 줘야 하는데 다단계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곧 돈이 벌릴 것 같지만 처음과 다르게 되는 게 많아 실망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언론에서도 봅니다. 현실은 어려운 시기이니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분의 회사에서 작업을 하든지 다른 곳 직장을 더 알아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1일 (음 4월 25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작은 희생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60년생** 나서면 골치 아프고 숙이면 도움 받습니다. **72년생** 실력을 가다듬어야할 때입니다. **84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 — **49년생** 운이 좋으니 확실한 목표를 세우세요. **6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3년생** 노력한만큼 인정도 따라주니 최선을 다하세요. **85년생** 가까운 사람을 더욱 잘 챙겨야 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웃는 표정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62년생**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6년생** 겸손해야 안좋은 일을 면합니다.

토끼 —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줍니다.

용 — **52년** 순탄하게 시작해서 순탄하게 끝납니다. **64년생** 복잡한 일은 주변에 맡기세요. **76년생** 이성관계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88년생**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하루입니다.

뱀 —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말 — **54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멈추는게 좋습니다. **66년생** 주위 생각보다는 본인 생각대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78년생** 급하면 체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주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양 — **55년생**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한 하루입니다. **67년생**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79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언을 경청하세요. **91년생** 컨디션이 좋지 않아 화를 내기 쉽습니다.

원숭이 — **56년생** 와달라는 곳이 많아 분주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시험이 있으면 도전하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윗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92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닭 — **57년생** 모나지 않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9년생**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합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93년**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개 — **58년생** 계획대로 진행하면 일이 잘 됩니다. **70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재물운이 있습니다. **82년생** 먼저 손을 내밀지만 잘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9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삼가하세요.

돼지 —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최지성 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는 길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대결이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우선 양측은 우호지분확보를 위한 물밑작업과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의 물밑작업은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10일 합병안 가결을 위해 자사주 899만557주를 11일 장외거래로 KCC에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KCC가 매입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KCC가 엘리엇에 대항해 삼성물산을 도울 '백기사'로 나선 것이다. 전날 삼성물산 관계자는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자사주 매각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번복한 셈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동안 합병 등 삼성의 중요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키플레이어'로 주목받아왔다. 삼성 상장사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국민연금은 삼성 계열사의 합병 사안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기에 국민연금의 입장이 이번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옛 제일모직과 삼성SDI 간 합병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평가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에는 반대표를 행사해 취소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론도 갑론을박이다. 이날 주총 안건 분석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은 삼성물산의 일반주주 지분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삼성은 대의명분에서도 엘리엇에 밀리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을 1 : 0.35로 결정했다. 합병비율을 정할 때 시가총액뿐만이 아니고 자산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정했다는데 대해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거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은 비상장사의 경우 합병가액을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이 합병공시에서 밝힌 제일모직의 자산총계는 8조1833억원인데 비해 삼성물산은 이의 3배가 넘는 26조1556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자산은 세 배 이상 많은 회사라는 것을 들어 주가에만 기초한 합병비율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미 기류는 형성됐다. 삼성물산 일부 소액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불만을 품고 엘리엇과 연대를 선언한 가운데 하루 만에 25만주의 주식이 모아졌다. 이날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위임 의사를 밝힌 삼성물산 주식은 25만7573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193억원어치다. 전날 보다 10.29% 올랐다.

비상이 걸린 삼성은 표 이탈 방지를 위해 고위층이 직접 해외주주들을 단속하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삼성이 엘리엇의 공격을 막고, 그룹 전체의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합병비율 재조정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시간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남았다. 특히 삼성의 3대 승계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수뇌부는 엘리엇 관계자와 주주들 모아놓고 현행 자본시장법 범위 내에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당장 총수 일가의 지분은 다소 줄 수 있지만 '이재용의 삼성'이 더 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 가치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집착할텐가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란을 예고하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 일체형과 메탈 소재 디자인을 강조하며 선제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애플의 아이폰처럼 일체형 제품으로 제작하면서 전작 갤럭시S5로 인해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매출과 직결되는 모바일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다.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 삼성전기나 삼성디스플레이 등 부품계열사의 수익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바람대로 갤럭시S 시리즈의 전성기 시절을 되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애플은 일찌감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경쟁 업체와 차별화 시켰다. 최근에는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중저가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샤오미는 가격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샤오미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만든 자체 모바일 OS인 '미유아이'를 사용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내세울 만한 자체 모바일 OS가 없다. 여전히 구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물론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 타이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전에만 적극적으로 적용할 뿐 모바일에선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

OS 생태계 구축에 성공한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문 수익이 회사 전체 수익의 20%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단순히 제품만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강자임을 강조하기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완성해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때다.

식욕 돋우고 피로 덜어주는 '신맛'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한방에서 음식의 맛은 단순히 입 안에서 느끼는 감각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의 다섯 가지 색이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듯이 음식의 다섯 가지 맛 역시 오장육부와 연결이 된다. 단맛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신맛은 간장과 담낭에 영향을 준다.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강화시켜주며, 매운맛은 폐와 대장, 쓴맛은 심장과 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땀 분비도 많아지고 똑같이 활동하더라도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 숙면을 취하기도 쉽지 않아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간 기능을 도와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신맛의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신맛이 나는 오미자나 매실을 차로 만들어서 수시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며, 신맛을 지닌 오미자나 매실이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땀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밖으로 새나가는 기운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도와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신맛이 침을 고이게 만들고 식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흡수에도 도움이 된다. 여름철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신맛 음식으로는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 귀리, 보리, 부추, 달걀, 닭고기, 동물의 간, 땅콩, 잣, 호두 같은 음식들도 신맛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국제분쟁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한국기업은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가끔 씩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기업인 A사의 제조기술을 인정한 미국회사인 B사는 제품생산을 A사에 의뢰하였고,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을 공동의 비용으로 제조하게 되었다. B사가 제작을 요청한 제품은 특수제품이어서 생산하기가 까다롭고 다른 제품의 생산공정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A사는 B사에게 충분한 수량을 발주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을 해 보니 B사의 주문량이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B사의 경쟁사가 A사에게 유사한 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B사는 다른 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침해라고 하며, A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B사는 해당 제품에 관하여 자기에게 독점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은 자기의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외 소송의 경험이 없고, 이런 분쟁을 처리할 인력도 없는 A사로서는 과연 B사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B사를 자극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경쟁사와 공급협의를 중단하였다.

한국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호간에 의견이 틀리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해외기업의 협박은 무시하지 못하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거래와 달리 분쟁의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 외국법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소송하게 되면 국내에 비해서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국기업은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정리한 후 해당 준거법상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신속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기업과 해당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해외기업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한국기업이 양보를 하여야 한다. 해외기업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설득을 해야한다.

설득이 안되면 그 해외기업과의 거래를 정리하거나 향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해외기업과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 처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New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즐기는
아이스 커피
Americcino
since 2015
아메리치노 4.9
Original / Sweet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gel-in-us Coffee